

국내 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동향 분석¹⁾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타이티히엔*, 남진보**, 김두원**

*선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

**국립 목포대학교 조경학과

e-mail: thaihien1129@gmail.com

Analysing Research trend on the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for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Students - Focusing on the Metric Bibliographic Methodology-

Thai Thi Hien*, Jinvo Nam**, Du-Won Kim**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Sunmoon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Mokpo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을 활용해 2001년-2023년 사이 KCI수록 학술지 중에서 987편의 유학생 관련 논문들 중
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넷마이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유학생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
부분이며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비중이 높았다. 유학생 친화적인 국제화 된 고등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의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 할 필요성이 있다.

1. 서론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이
후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다.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또한 정부 주도하에 우수
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 대학에서도 학령인
구 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민현정, 2013). 법무부의 출입국 통
계(2022년 12월 말)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이나 어학 연구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66,892명으로 2003년 12,314명에 불과했던 유학생 수는 2022
년에 1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재학
생의 4.8% 학생이 외국 국적이며,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 상
당수 대학이 재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
났다(신동훈, 김세현, 2020).

[표 1] 외국인 유학생 년도별 현황 (단위: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유학생	142,205	160,165	153,695	152,281	166,892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의 재정 이익과 국제화된 교육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타국에서의 낯선 언어와 문화 적
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은 중도 탈락, 이탈 등의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표 2] 2022년 국내 고등기관 유학생 현황 (단위:명)

국가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기타
2022	67,439	37,940	8,608	7,348	5,733	3,369	36,455
비율	40.4%	22.7%	5.2%	4.4%	3.4%	2.0%	21.8%

2022년의 고등기관 유학생 통계에서 중국 유학생이 40.4%
로, 뒤이어 베트남 유학생이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표2]. 그동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는 이들의 대학 생활
적응으로 학업, 인간관계, 경제 문제 등(신선희, 유문무, 2014;
하정희, 2008)에 대한 연구와 문화적응(이수범, 김동우, 2009;
이흥직, 2011)로 크게 나누어진다(이혜영, 박수정, 2018). 한편
베트남 유학생의 비중은 증가한 것에 비하여 베트남 유학생
들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연구동향에 대하여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베트남 유학생의 문화적응 양상과
문화적응 전략을 분석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문화적응

1)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2R1G1A1013266).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접촉으로 생기는 변화이며 문화적, 심리적 변화의 이중적인 과정(Berry, 1997)이라고 정의된다. 한편 Gibson(2001)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집단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그들의 문화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 집단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문화 적응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Oberg(1960)의 문화충격 이론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와 이질적 문화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문화충격이라고 하였다. 문화 적응 초기에는 문화적 피로, 언어 및 역할 그리고 환경의 충격 등이 나타나며, 문화충격 단계 사람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의존하여 이를 극복해낸다(이성희, 2015). Rentzsch(1999, 유수연 2008 재인용). 문화 적응의 네 단계를 열광의 단계, 문화충격 단계, 적응단계,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Berry(1997)은 모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문화 적응 전략을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으로 구분하였으며 통합전략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적응은 접촉하게 되는 양 집단 모두에서 발생하지만 한 집단에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주류 집단은 문화적응 집단이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도울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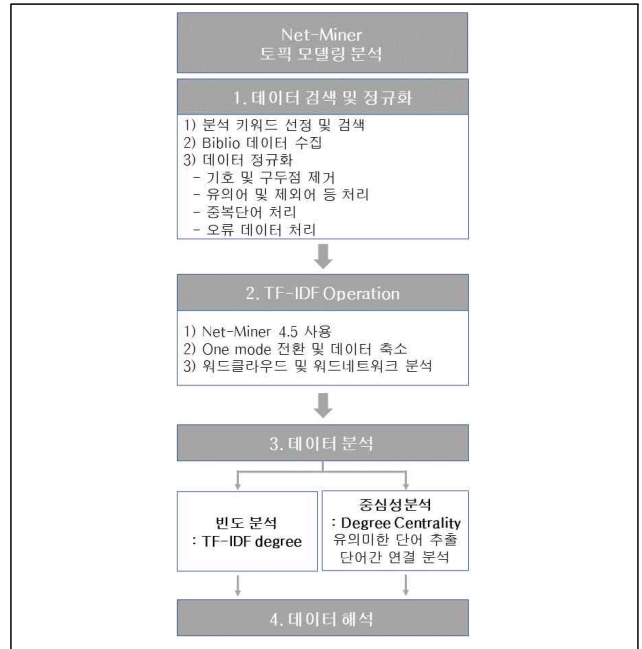
2.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신이 성장해온 문화와 다른 문화권이 접하게 되는 문화접변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 습득과 적응을 하는 문화변용의 과정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Berry, Kim, Minde & Mok, 1987)하거나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으로 정의된다(Hovey & Magana, 2002). 선행 연구는 주로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이나 우울, 정신건강 상태, 향수병, 소외감, 신체 증상, 정체성 혼란에 영향을 미치며(나임순, 2006; Berry, Kim, Minde & Mok, 1997; Williams & Berry, 1991), 유학생이 심리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일반 학생에 비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Poytazil et al., 2004; Thomas & Choi, 200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의 범위

2001년 3월-2023년 3월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KCI 수록 논문 총 987편을 중 22편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중심성분석과 LDA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한 해석과 시사점 도출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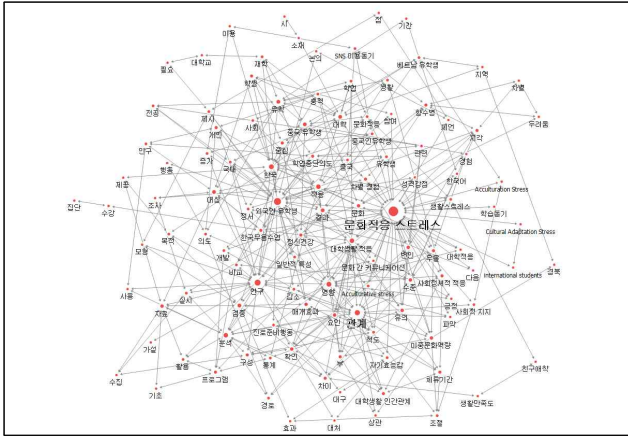
3.2. 연구의 방법

Net-Miner V4.5.0의 Biblio Data Collector 기능으로 과거 20년 간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분석에 필요한 논문을 선별하였다. 검색 키워드별 결과로 ‘외국인유학생’ 총 987편, ‘외국인 유학생, 문화적응’ 총 119편, ‘외국인유학생, 베트남’ 43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해당 메타데이터의 제목과 초록 내용 중에 분석에 필요한 키워드에 집중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초록의 내용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초록과 같이 문장형으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는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Karl, Wisnowski & Rushing, 2015; Lucas et al., 2015). 전처리 과정으로 정규화 작업을 수행한 후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및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한 단어의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유의미한 단어를 추출하였다.

4. 계량서지학적 분석 결과

4.1. 연결중심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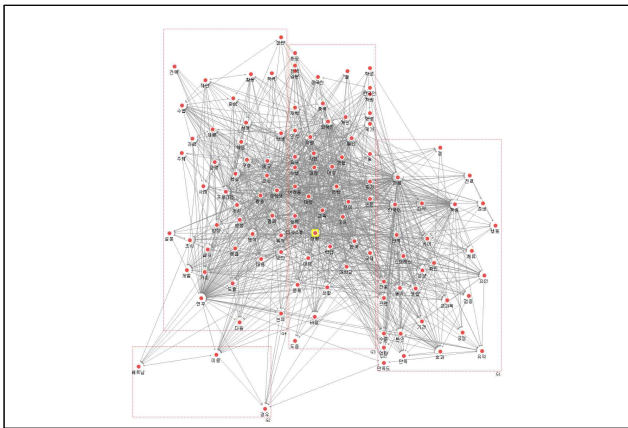
연결중심성 분석의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하여 외국인 유학생, 적응, 대학생활, 관계, 영향, 한국, 분석 등이 중심에 분포하여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의 중심에는 한국어 학습이나 학습동기, 학업중단의도, 대학생활적응 등이 중요한 영향 요소인 것이 도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4.2. 커뮤니티 분석 결과

커뮤니티 분석 결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으며 그룹 1은 ‘문화’, ‘적응’, ‘관계’, ‘전공’, ‘한국어’, ‘수준’, ‘만족도’를 중심으로 그룹2는 ‘이용’, ‘경우’, ‘베트남’, 그룹3은 ‘교육’, ‘대학’, ‘유학’, ‘외국인’, ‘생활’, ‘학업’, ‘학교’, ‘중국’, ‘중국인’,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그룹 4는 ‘유학생’, ‘프로그램’, ‘목적’, ‘학습’, ‘활동’, ‘연구’, ‘분석’ 등으로 분석되었다. 즉, 그룹 1은 한국어 수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 그룹2는 연결성이 낮지만 베트남과 관련된 내용이 그룹3은 중국이나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 생활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 등의 연구가 그룹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룹4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활동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등의 연구가 그룹화되었다[그림3].



[그림 3] 커뮤니티 분석 결과

4.3. 국내 연구에서 일반적/부정적 쟁점 분석

일반적 쟁점으로 ‘외국인유학생’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빈도수와 연결성을 보여 중요한 완전 네트워크로 도출되었다. 이외 ‘한국’, ‘관계’, ‘대학’, ‘적응’, ‘중국 유학생’, ‘프로그램’, ‘베트남 유학생’과 같은 쟁점이 일반적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중국유학생 연구에 비해 베트남 유학생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쟁점으로는 ‘우울’,

‘차이’, ‘학업중단의도’, ‘지각’, ‘차별 경험’ 등이 상위에 분포되어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회심리적 변화로 우울이나 차별 경험 그리고 향수병 등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3].

[표 3] 일반적/부정적 쟁점

General Issue	빈도	In degree	Negative Issue	빈도	In degree
외국인유학생	73	24	문화적응 스트레스	95	38
한국	23	14	우울	11	7
관계	23	18	차이	11	7
대학	16	10	학업중단의도	10	5
적응	15	12	지각	10	7
중국유학생	13	8	차별경험	7	5
수준	11	7	차별	7	2
재학	10	7	향수병	6	5
프로그램	9	4	충격	6	4
베트남유학생	6	5	감소	5	5

4.5. LDA 토픽 모델링 분석

[표4]는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 도출된 10개의 토픽과 개별 토픽들을 설명할 확률이 높은 상위 5개 단어를 제시하고,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각 토픽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주제로 명명한 결과이다.

[표 4]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1 st 키워드	2 nd 키워드	3 rd 키워드	4 th 키워드	5 th 키워드
토픽1	영향	문화	지각	차별	통계
토픽2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계	우울	수준	이중문화역량
토픽3	외국인 유학생	검증	모형	자기 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토픽4	외국인 유학생	국내	한국무용 수업	유의	정서
토픽5	연구	한국	이용	가설	적응
토픽6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실시	척도	자료
토픽7	결과	효과	재학	조절	자료
토픽8	분석	대학	학업중단의도	유학생	매개효과
토픽9	연구	대상	유학	확인	결과
토픽10	중국유학생	프로그램	정신건강	변인	차별경험

LDA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는 여러 요인에 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연관 관계 그리고 연구 대상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연관 관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우선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5, 토픽6, 토픽7, 토픽8 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차별, 우울,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학업중단 의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연관 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효과 등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다.

한편, 토픽9, 토픽10은 연구 대상 및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차별경험과 변인에 따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가 도출되었으며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과 연계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유학생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서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로 작게 도출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임을 고찰할 수 있었다. 셋째로 중국 유학생이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앞으로 베트남 유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유학생 그룹에 대한 연구 증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증가하는 유학생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의 해소에 기인한 사회통합으로 유학생 친화적인 국제화된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2R1G1A1013266).

참고문헌

[1] 교육부(2022). 2022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 에서 2023.03.31. 인출.

[2] 나임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 pp.159-197, 12월, 2006년.

[3] 신선희, 유문무, “제한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8(2), pp.45-69, 6월, 2014년.

[4] 유수연 “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8년.

[5] 이성희, “한국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박이정, 2015년.

[6] 이수범, 김동우,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11, pp.47-79, 6월, 2009년.

[7] 이홍직,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사회적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19(2), pp.183-194, 6월, 2011년.

[8] 이해영, 박수정,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2007-2016)”, 글로벌교육연구 10(4), pp.119-145, 12월, 2018년.

[9] 하정희,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pp.473-496, 5월, 2008년.

[10]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pp.491-511, 1987.

[11]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68, 1997.

[12] Gibson, M.A.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1), pp.19-23, 2001.

[13] Hovey, J. D., & Magana, C. G.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pp.223-237, 2002

[14] Hyun-Jung Min, “A Study on Chinese Students in Adjusting to Korean University Life and Supporting System - Focused on Acculturation, Social Distanc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한국비교정부학보 17(3), pp.371-387, 2013.

[15] Karl, A., J. Wisnowski and W.H. Rushing, “A Practical Guide to Text Mining with Topic Extraction”,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7(5), 2015.

[16] Lucas, C, et al.,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for Comparative Politics.”, *Political Analysis*, 23(2), 2015.

[17] Oberg, K.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4), pp.177-182, 1960.

[18] Poyrazli, S., Kavanaugh, P. R., Baker, A., & Al-Timimi, N.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pp.73-82, 2004.

[19] Williams, C. L., & Berry, J. W.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pp.632-641, 1991.